

## Liu Jianhua

March 31 – April 29, 2023  
1/2F, Pace Gallery Seoul

Opening Reception: March 30, 5–7 PM



Liu Jianhua, *A Unified Core*, 2018 © Liu Jianhua

페이스갤러리 서울은 도예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들로 잘 알려진 류젠화(b. 1962)의 개인전을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7년 중국 도자 생산의 중심지인 경덕진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래, 50여년의 세월 동안 다뤄온 ‘도자’라는 재료에 대한 작가의 오랜 탐구와 그 기술적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는 작가의 작업 세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작들 <A Unified Core> (2018), <The Shape of Trace> (2016–2022), <Blank Paper> (2009–2019), <Lines> (2015–2019)이 포함된다.

류젠화는 조각과 설치 작업을 통해 축적과 일시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는 도자,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 공산품, 폐기물 등 다양한 재료로 매개로 중국의 역사·문화와 조응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작업의 주 소재인 도자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의 도자 예술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세계화의 맥락 안에서 동시대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일련의 작업들은 최근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형태’와 ‘추상성’에 관한 류젠화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2008년부터 이전까지의 작업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사회·정치적 주제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을 통해 중국 시각문화의 역사를 재사유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종이처럼 얇은 백자 조각이 벽에 걸려 있는 형태로 구성된 <Blank Paper> 연작은 이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작품이다. 나선형 리본 모양의 도자 조각이 마치 낙서처럼 벽에 자유롭게 걸려 충돌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Lines> 연작 역시 변화의 연장 선상에 있는 작품들이다.

전시장 1층 공간을 가득 메우는 류젠화의 2018년 설치작 <A Unified Core>는 약 500개의 눈물방울 모양의 백자가 천장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연출된 작품이다. 관객은 작품의 주변을 천천히 거닐며 깊고 고요한 사색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류젠화의 최근 연작 <The Shape of Trace>는 역사 속 인류 문화 발전의 다양한 양상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하이라이트다. 해당 연작의 작품들은 서정적 형태를 통해 시간의 경로와 역사의 기나긴 궤적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2023년 4월 7일에 개막하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도 본 작품을 대규모 설치 작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 자신의 예술적 실천의 역사에 있어서도 도자 재료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자의 사용은 세상의 역사에 더불어 작업의 내적 역사에 깃든 진화와 진보의 개념을 나란히 고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류젠화**(b. 1962)는 1977년부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생산 중심지로 손꼽히는 경덕진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985년 경덕진 도자전문학교에 입학한 그는 1989년까지 재학하며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조각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그와 함께 활동했던 대다수의 중국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류젠화 역시 '85 신사조 미술운동(85 New Wave)'에 영향을 받았다. '85 신사조 미술운동'은 그 당시 중국 내 발생했던 사회·정치적 전환의 기류와 맞물려 서방 국가의 모더니즘을 새롭게 접한 젊은 세대의 작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표현적, 실험적인 예술로의 급진적인 전환을 제안한 시도였다. 류젠화 역시 사실주의와 전통적인 도자 공예 기법에서 탈피하여 작업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서사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며, 페이스갤러리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작가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페이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 갤러리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예술가들과 더불어 알렉산더 칼더, 장 뒤뷔페, 바바라 헵워스, 아그네스 마틴, 루이스 네벨슨, 마크 로스코 유족 및 재단과도 수십 년 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페이스는 설립 초기부터 추상 표현주의와 빛과 공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 아네 글림처(Arne Glimcher)가 설립한 이래로 예술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로 발전해 왔다. 현 마크 글림처(Marc Glimcher) 회장이 이끄는 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독창적인 작업을 전시, 프로젝트, 공공 설치, 기관 간 협력, 큐레이토리얼 연구와 500여 권에 이르는 출판물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갤러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eb3 활동을 위한 Pace Verso를 출시했다.

현재 페이스는 뉴욕 첼시 25가에 위치한 두 개의 갤러리(2400여평의 전시공간과 새로 오픈한 7층 규모의 건물)를 포함해 런던, 홍콩, 서울, 제네바, 이스트 햄튼, 팜 비치, 로스앤젤레스까지 전 세계 8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는 아시아에 최초로 진출한 국제적 갤러리로서, 베이징에 사무실과 뷰잉룸 뿐만 아니라 홍콩과 서울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이스트 햄튼과 팜 비치에 시즌별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Press Inquiries

Kyungmi Kim  
Public Relations Associate  
kkim@pacegallery.com  
+82 070 7708 7755

#### Follow Pace 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